|  |  |  |  |  |
| --- | --- | --- | --- | --- |
| 데이터 | 날짜 | 날짜끝 | 데이터수 | 영화수 |
| Kobis\_final\_table | 2003-01-01 | 2018-08-02 | 53,253 | 4,663 |
| Sorting\_all\_movie | 2017-01-02 | 2018-06-29 | 1,350,000 | 561 |
| Bef\_sorting\_all\_movie | 2017-01-03 | 2018-06-27 | 106,218 | 474 |

각 데이터 구분

Kobis\_final\_table

Columns

movie index : 영화 구분에 좋겠지?

스크린수, 스크린점유율, 상영횟수

좌석수 좌석점유율

좌석판매율, 매출액, 매출액증감

관객수, 관객수 증감

누적 매출액, 누적 관객수, 순위

리뷰데이터 사용 – 개봉전 특징 개봉후 특징 나눠서 가져가기

리뷰의 변화에 따른 매출액 변화

간단한 평균 사용

매출데이터로 바꿔서

특정 단어 빈도에 따른 잠재성 평가

기본 데이터와 맞지 않는 문제 : 리뷰 데이터 사용과 사용전 비교

데이터 분석 방법 –

1. 목표 – 개봉 1일차 이전까지의 여러가지 데이터를 활용해서 14일 시점의 영화의 매출 파악
   * 1. 매출액 예측
     2. 매출이 높은 영화의 특징
     3. 수요 예측 – 데이터 안맞을거 같은데?
2. 가설

A. SNS의 긍정적 반응이 활발할수록 흥행의 가능성이 높다.

1. 방법
   1. 리뷰데이터 기간별 특징
2. 문제점
   1. 리뷰데이터를 사용하기에 데이터 기간이 맞지 않다.
   2. 데이터가 너무 부족하다

[통상적으로 업계에서는 영화 흥행에 영향을 미치는 내외적 요소를 다음과 같이 손꼽고 있다](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OrteServHistIFrame.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253444&sereArticleSearchBean.orteFileId=KCI_FI002253444). 영화 흥행에 미치는 내적 요인(제작 단계)에는 감독의 역량, 출연 배우, 예상 관람등급, 원작 유무, 장르, 시나리오의 완성도, 총제작비 등이 있다. 외적 요인(배급 및 상영 단계)에는 배급사의 규모와 영향력, 개봉 시기, 스크린 수, 해외영화제 수상 여부, 전략적인 마케팅 등이 있다.

앞서 언급된 영화들은 흥행요소를 두루 갖췄으나 결과적으로는 손익분기점을 넘지 못했다. 두 영화의 공통점은 바로 시나리오의 완성도에 의문점을 남겼다는 점이다. [영화 한 편의 모든 가능성을 담고 있는 설계도](https://eiec.kdi.re.kr/publish/nara/column/view.jsp?idx=5897)가 미흡하다면, 제아무리 화려한 제작인력과 배우가 투입되더라도 흥행으로 이어지지 못할 수 있음을 보여준 단적인 예다.

[영화를 평가하거나 흥행도 예측이 필요한 시점은 영화 출시 전후가 아니라, 시나리오가 완성된 시점이라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배경](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02466494)이다. 이는 영화제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정비가 발생하는 시점의 특이성 때문이다. 고정비의 상당 부분은 제작준비 및 제작 단계에서 발생한다. 고정비가 곧 제작비라고 봐도 무방하다. 반면, 소재 발굴 및 시나리오 개발 단계에서는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 [투자, 캐스팅 등이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이뤄지는 만큼, 영화제작 기간 중 가장 큰 노력과 시간을 들여야 하는 부분](https://edu.kocca.kr/edu/bbs/B0000020/view.do?nttId=41398&searchCnd=&searchWrd=&gubun=&delCode=&useAt=&replyAt=&menuNo=500011&sdate=&edate=&viewType=&type=&siteId=&option1=&option5=&pageIndex=15)이 바로 이 시나리오다. 이런 논리에 따르면 영화 제작 전, 즉 시나리오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시점에서 비용과 수익에 대한 정밀한 계산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해 볼 수 있다.